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가심으로, 애굽의 장자들처럼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구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서 둘째 해 1월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데, 이 유월절은 홍해를 건넌 후에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살아갈 때에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매해의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1년 중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기념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달 후인 2월14일에 그 사람들이 따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든 지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끝나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광야에 도착하였는데 레위기를 지나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시내광야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성막에서 만나주셨지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일년이든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하지 않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민9:15-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민9:23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아름다운 선 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끄셨습니다.

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하는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따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추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종으로 살던 곳이요 이방 우상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애굽사람들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민11:33)" 하나님의 백성은 고기를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이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민12: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일을 핑계 삼아 모세의 지도자로써의 자격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인도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출33:11).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그 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그 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비방과 원망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방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는 원망의 말이 우리의 심령을 죽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비방이 자칫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시며 그 분의 인도하심 따라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